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30원 하락한 1,213.80원에 마감

23일 환율은 전일대비 4.30원 하락한 1,213.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60원 하락한 1,214.50원에 개장했다. 간밤 위험 선호 심리 회복에 겹다운 출발한 환율은 오전 중에는 1,214원 부근에서 횡보하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빅스텝 인상 가능성에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반등하고 코스피 등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98.5선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점심 무렵 달러-원 환율은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 소식에 1,211원대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1,210원대 초중반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변동 폭은 4.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01.98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4.50	1215.00	1211.00	1213.80	1212.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8.73	1008.73	999.25	1003.5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3.12	1345.22	1330.45	1335.4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2	0.12	-1.63	-7.16
결제환율(수입)	0.12	0.86	-0.62	-5.2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연준 빅스텝 지지 증가 영향에.. 1,220원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13.80원) 대비 5.25원 상승한 1,219.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50bp 인상 지지 증가로 인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위축 영향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일부 회의에서 50bp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인플레이 압력을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더 좋은 옵션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준 내 비둘기 성향 인사까지 5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불과 하루 전 경기 회복 낙관론에 반등했

던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오늘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부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위험통화를 대표하는 원화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말을 맞이한 수출 네고, 당국 미세조정 경계는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17.00 ~ 1224.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71.5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25원 ↑
	■ 美 다우지수 : 34358.5, -448.96p(-1.2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5.1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6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